일제 강탈 고려철불, 寺·官 원력 모아 '환수' 추진

성보유랑 聖寶流浪

⑤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높이가 2.57m에 달하는 거대한 철불이다. 1918년 일제가 강제로 징집해 서울로 이운해 경복궁에 전시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철불에 손이 없는 것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손을 잘라 땅에 매장했다는 가설이 전해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인 불교조각실에는 2m가 넘은 거대한 철불이 자리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웅장한 철불은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불 중 가장 크다. 실제 불상의 크기는 높이 2m57cm, 좌폭 2m17cm에 달한다. 함께 출토됐던 통일신라 철조여래좌상까지 감안하면 서산 보원사의 전성기 위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철불, 융성했던 보원사 확인

서산 보원사는 신라 하대와 고려 초 크게 번성한 사찰로,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이 사찰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법인국사 탄문(900~975)이다. 탄문의 행적은 보원사지에 남아 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를 보면 알 수 있다.

탄문은 세납 56세에 보원사와 인연을 맺었고, 이곳에서 철불을 조성한다. 비석 기록에 의하면 탄문은 955년(광종 6)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금상삼존을 주조했다(鑄金像之三尊)"고 기록했다.

'주금(鑄金)'은 '쇠를 주조했다'는 의미이며 '금상(金像)'은 '금박을 입혔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철불 3구를 주성하고 금박을 입혔다'는 것이다.

철불은 금동불상보다는 제작 공정이 훨씬 까다롭지만,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조성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철불은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지방 호족들의 대두와 구리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당시 호족들은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철을 항상 비축했고, 금동불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 불상을 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재료였다.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지방 호족인 충주 유씨가 후원했다. 충주 유씨는 광종의 어머니인 신명왕후의 가문이기도 하다. 당시 충주 유씨는 철 생산과 유통으로 부를 축적했고, 남한강 일대의 대표 호족으로 성장했다. 실제 남한강 일원의 철조 불상들은 충주 유씨의 후원들이 많다.

중국과 일본의 철불 조성 시기가 각각 12~13세기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서산과 내포 일원의 철기 제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보원사지 고려철불이다.

철불 자리 떠난 이유는

융성했던 보원사가 언제, 어떻게 쇠락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1682년에 제작된 〈동여고비〉에 보원사가 표기된 기록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까지는 법맥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 보원사지가 기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다.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반도 일대의 고적 조사를 진행했고, 서산 보원사지에 대한 조사도 이때 이뤄졌다. 일제는 조사를 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안치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된다.

1916년 작성된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는 "불상은 전포 가운데에 있다. 소옥(小屋)에 안치돼 있으며 문은 쇄약(자물쇠)으로 잠궈 부락민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불체는 좌상으로 정교 치밀해 보기 드문 일품"이라고 기록됐다. 보원사는 쇠락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별도의 봉안당을 만들어서 불상을 모시고 예경하고 있었다.

조사를 마친 일제는 비석과 승탑 등은 놔두고 옮길 수 있는 철불을 이운했다. 이운 시기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휘보(朝鮮彙報, 1919)〉와 〈박물관진열품도감(博物館陣列品圖鑒, 1920)〉 등을 종합하면 보원사지 철불은 1918년 서울로 이운됐다.

고려 탄문 스님, 철불 조성 추정
보원사 쇠락 후 민간 안치 · 보존
일제 강제 징발해 경복궁에 전시

보원사, 환수위 구성…환수 추진
서산시, 보원사지 정비하며 '공조'
올해 착공 방문자센터, 환수 기틀



서울로 이운된 보원사지 철불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당시 기록들을 종합하면 높이 2m57cm에 무게가 어림잡아 수 톤에 이를 불상을 이운하는 것은 군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 본래는 해로를 통해 이운하려 했으나 운송 비용을 이유로 육로를 통해 불상을 이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1928년 간행된 〈조선불교(朝鮮佛教)〉 제45호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서산 가야산에서 천안역까지 약 60여 km(기록에는 20리라 표기. 오기로 추정) 운반하는데 하루 인부 40~50명, 소달구지 대여섯 대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기도 했다. 천안역까지 운반하는 데만 7~8일이 걸렸다고 한다.

문제는 천안역에 도착한 철불을 열차에 옮기는 일이었다. 기록에는 "'불상을 어떤 방식으로 기차에 옮길 것인가'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켰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기차로 옮겨 싣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술됐다. 이후 철불은 경복궁에 전시됐고, 〈조선불교〉 제45호는 당시의 모습을 "그 장대함과 용안의 풍만함은 원내에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일련의 기록들을 정리하면 쇠락한 사찰의 철불을 인근 주민들이 작은 봉안당을 지어 모시고 있었지만, 이를 조사한 일제는 강제로 불상을 서울로 이운해 전시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찰 · 지자체 "철불 환수를"

그렇게 이운된 철불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안치됐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전시돼 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철불을 환수하기 위한 운동과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중이며, 환수에 실효적 정책들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한 보원사(주지 정경 스님)는 개원 이래 꾸준히 환수 운동을 추진해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려철불 환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월로 고려철불 친견법회를 신도 대상으로 봉행했다. 2020년 6월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환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원사는 2020년 4월 광화문1번가에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지본처'를 정책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출토된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규정'에 따라 요청 시 실사와 협의를 통해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수에는 서산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산시는 현재 3단계에 걸친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인 잔디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됐다. 3단계 사업에는 연면적 1600㎡ 가량의 방문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방문자센터 설계 공모가 이뤄졌다.

보원사 역시 철불 환지본처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지난해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데 이어 방문자센터까지 완공되면 철불의 환지본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원사 주지 정경 스님은 "방문자센터가 올해 중으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문자센터가 완공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원사지 고려철불을 장기임대 형식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박물관에 있으면 하나의 소장품에 불과하지만 서산에서는 지역의 철기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보원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는 빛도 못 보고 있는 유산들이 적지 않고 야외만 해도 불교의 석탑과 석등, 부도탑이 많다"면서 "철불 역시 지역 문화 향유권 차원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